

황은순 차장대우 hwang@chosun.com

지난 3월 3일 미국 뉴욕시 맨해튼의 소호에서 '코리아 아트쇼'가 열렸다. 국내 작가 150여명의 작품을 소개한 아트쇼에는 4일간 1만여명이 몰려 한국 미술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다. 세계 현대미술의 본거지를 한국 미술이 당당하게 확보하게 될 줄은 수십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한국 미술이 해외에 처음 진출한 것은 언제일까? 1958년 뉴욕의 월드하우스 갤러리에서 열린 '한국현대회화전'이 국제무대 데뷔전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화단에서 한국 현대미술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있다. 서울 마포구 창전동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에서 '한국현대미술의 해외진출-전개와 위상'전이 열리고 있는 것. 이 전시에서는 1958년 '한국현대회화전' 자료, 1953년 조각가 김중영이 입선한 국제공모전 팸플릿 등 쉽게 볼 수 없는 귀중한 자료 100여점이 공개됐다. 1963년 상파울루 비엔날레와 파리 비엔날레 참여 작가 선정을 두고 "추상화에 치우쳤다"며 구상화가들이 반발한 '108인 연서 소동'을 소개한 신문기사도 눈에 띈다.

소중한 보물 보따리를 풀어놓은 사람은 김달진(56) 미술자료박물관장이다. 김 관장은 '걸어다니는 미술 사전'이라고 소문난 사람이다. 미술 바닥에서 그를 모르면 시쳇말로 간첩이다. 중·고등학교 때 잡지에 실린 명화를 찢어 스크랩을 하고, 헌책방을 찾아다니며 미술 관련 책과 잡지를 사 모으기 시작한 수집 역사가 40년이 넘었다. 이번 전시에 나온 희귀 자료들도 국립현대미술관이나 개인 소장품도 있지만 그가 발품을 팔아 수집한 자료가 70%에 이른다.

전시를 앞둔 김 관장을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에서 만났다. 정부에서 2년 한시적으로 임대료 지원을 받아 지난해 12월 새로 동지를 튼 곳이다. 2개층 3개의 열람실에는 김 관장이 모은 자료에다 2007년부터 '미술자료 수집 캠페인'을 통해 기증받아온 자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인터넷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수십 년 전 신문기사, 작가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전시 팸플릿·화집·미술 관련 책

등 수만 점에 이른다. 1921년 최초의 미술잡지인 '서화협회보'도 있다.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이곳으로 이사할 당시 자료만 트럭으로 18톤 분량이었고, 고향인 충북 옥천 집에 남아있는 자료가 아직도 4톤이 넘는다. 김 관장이 평생을 걸고 모은 자료들은 일반인에게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자료는 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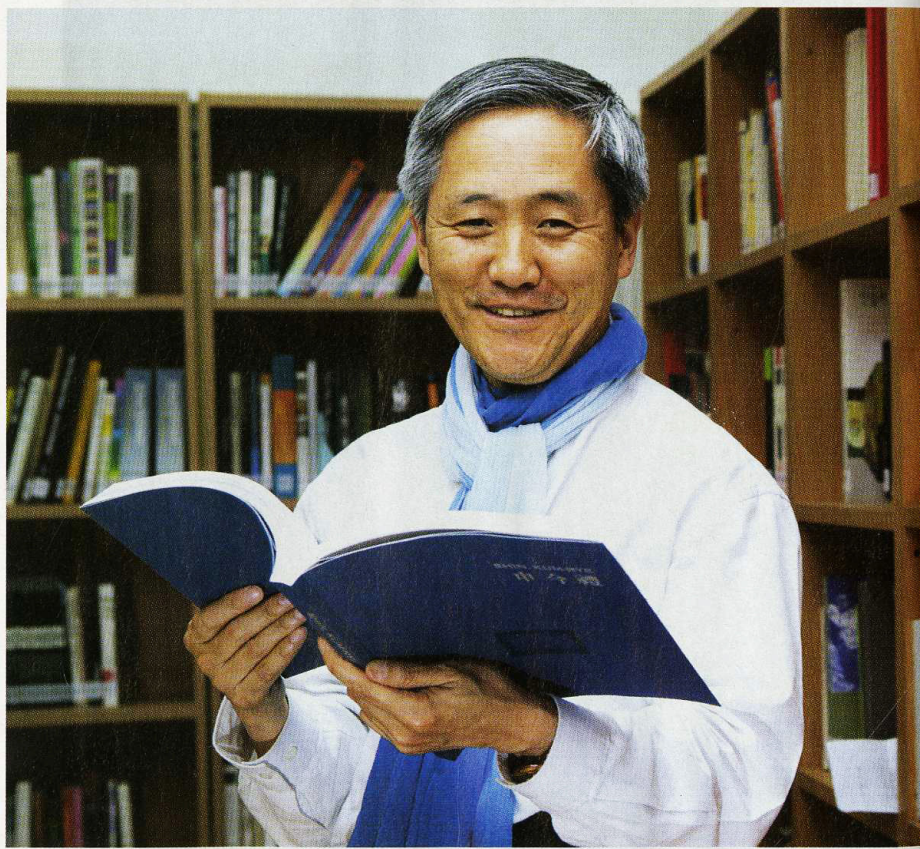
"자료는 역사이고 힘입니다. 팔만대장경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한국 미술의 기초자료를 보관하고 역사를 남기는 일에 우리는 너무 소홀합니다. 근대미술의 경우 자료가 상실돼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해야지요. 한국 현대미술의 역사를 돌아보고 문제점과 과제를 정리해보자는 의미에서 이번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김 관장은 해외에 한국 미술이 어떻게 보여졌는지 알아야 세계로 나아가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전시회뿐만 아니

걸어다니는 '미술 자료실'

한국현대미술 해외진출사 50년을 보여드립니다!



라 세미나도 개최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단행본도 펴낼 계획입니다. 이런 일은 개인이 할 일이 아닌데 정부나 우리 사회가 자료의 중요성을 몰라주니 안타깝습니다."

김 관장은 인터뷰 하는 내내 그냥 말을 하는 법이 없었다. 방을 왔다갔다 하면서 어디선가 관련 자료들을 찾아와 계속 내밀었다. 그 자료 중에 젊은 시절 김 관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다. 세월의 변화라고 보기에는 많이 달라보였다. "살이 많이 빠져서 그렇지요. 3

월에 목 뒤에 큰 혹이 생겨서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신경을 눌러 하마터면 온몸이 마비될 뻔했다는 혹 덩어리는 사실 그의 수십 년 '수집병'과 무관하지 않다. 서울 인사동과 청계천 7, 8가의 헌책방을 오가며 욕심껏 모은 자료를 큰 보따리와 쇼핑백에 담아 한쪽 어깨에 걸쳐 메고, 한쪽 손에 들고 다녔던 것이 결국 몸에 무리를 줬던 것이다. 금요일이면 인사동 화랑가에 나타나 자료를 쓸어가는 바람에 그는 '금요일의 사나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미술박물관까지

취미로 시작했던 자료 수집이 그의 숙명이 된 것은 2009년 작고한 이경성 전 국립현대미술관장과의 인연 때문이다. 김 관장은 고교 졸업 후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보자에게 싸들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녔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이경성 관장님이 제 열정을 눈여겨본 모양이에요. 국립현대미술관장으로 취임하면서 '일용직이라도 쉼꼴겠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가 1981년이였다.

"청소부라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으니 자료실에서 일을 하게 된 그가 얼마나 열심히 했을지는 안 봐도 뻔한 일이다. 15년을 꼬박 근무했지만 대학 졸업장이 없는 그에게 돌아온 것은 일용직, 계약직, 그 다음은 계약직만도 못한 기능직 10급이었다. 고민 끝에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 자료실장으로 옮겼다.

가나아트에서 6년 가까이 일한 후 2001년 독립, 김달진미술연구소를 열었다. 이듬해 화랑가의 소식을 담은 서울아트가이드를 창간했다. 한 장짜리 서울아트가이드는 "기적처럼" 10년 만에 200쪽 분량으로 발전했다. 서울아트가이드는 무가지로 3만부가 발행되는데, 화랑들이 가장 먼저 전시 광고를 신는 잡지가 됐다. 서울아트가이드의 광고 수입이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을 움직이고 있다. 미술연구소에서 박물관으로 등록을 한 것은 지난 2008년이다.

공부에 몰두했던 김 관장은 뒤늦게 대학에도 도전했다. 서른세 살에 서울산업대 금속

공예과에 입학하고, 중앙대 예술대학원 문화예술학과에서 석사 학위까지 받았다. "대학 4년 동안 배운 것은 아무리 쉽게 보이는 작품도 작가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는 겁니다. 직접 해보고서야 알았습니다. 미술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 미술 소개하는 영어사이트 만들고 싶다

신문·잡지 조각들에 코 박고 있느라 남들이 흔히 하는 등산 한번 다녀본 적이 없었다는 김 관장은 "아직도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세계시장에 한국 현대미술이 진출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영어로 소개된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해외에서 정보를 구할 수가 없는데 한국 미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어로 한국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싶어요."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미술인 인명록'을 펴냈다. 이 책에는 1850년대 채용신부터 시작해서 1960년대에 태어난 작가까지 총 4909명의 정보가 담겨 있다. 무명의 화가로 살다간 사람이 대부분이다. "1등만 기억하는 냉정한 세상에서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화가로 살다간 사람들의 이름도 남겨주고 싶었다"는 김 관장의 의지가 담겼다.

김 관장은 지금껏 남이 돌아보지 않은 '자료'와 '역사'를 다시 주워 담아 한국 미술 역사를 채워온 것처럼 남이 안 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술인 인명록 후속작업도 계속 해야하고 지금껏 모아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미술을 정리하고 역사를 남기는 책을 내고 싶어요. 사실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인데..." 끝을 흐리는 김 관장의 말에서 지원에 인색한 정부에 대한 서운함이 묻어났다.

2년만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기로 돼 있는 건물도 걱정거리다.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운영비는 서울아트가이드 수익금을 쏟아붓고 후원회원들의 회비도 보태고 있다고 했다. "1년에 회비 10만원을 내는 후원회원이 많으냐"고 물었더니 "30명 정도"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젠 발을 뺄 수도 없고 숙명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는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다. **주간조선**